

## 문화과학 페미니즘 세미나

###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 서문, 서론, 1장, 2장

일시: 2015년 10월 3일(토)

발제자: 손희정

### 서문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성해방의 전략을 짜는 것에 충분한 관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자는 성차별과 가부장제를 생산과 계급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초역사적 문화 구조의 토대 위에 놓는 경향이 있었고, 후자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 차이가 여성을 배제한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던 시기의 여성사를 추적할 필요가 있었다. 이 작업에 영감을 준 달라 코스타와 제임스는 여성 “억압”과 남성에 대한 종속을 봉건적 관계의 잔재로 보는 맑스주의의 정설에 맞서, 여성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인 “노동력”의 생산자이자 재생산자였던 만큼 여성 착취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달라 코스타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의 착취, 즉 “임금 노예제”는 여성의 가정 내 무임노동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졌고, 이 무임노동이 임금 노예제 생산성의 비결이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여성착취의 뿌리를 성적분업과 여성의 무임노동에서 찾음으로써 가부장제와 계급의 이분법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1984년에서 1986년, 채무위기를 해결하려 했던 나이지리아의 예. 프로그램의 공식 목표는 나이지리아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초축적과 사회적 재생산의 합리화를 수반한다는 것이 곧 명백해졌다. 그것은 (이전의 작업이었던) <대캘리번>을 준비하면서 연구했던 내용과 흡사한 과정이었다. 그 중에는 공유지에 대한 공격과 노동인구의 재생산에 대한 (세계은행이 부추긴) 국가의 결정적인 개입이 있었다. 출산을 규제하는 문제가 등장. “무질서와의 전쟁”이라 적절히 명명된 이 정책들과 나란히 여성의 허영심과 과도한 요구를 비난하는 여성혐오적인 캠페인이 등장했다. 등등등.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이 요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방식으로 삶을 바라본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의 원천이 되었다.

### 서론

자본주의 치하에 있는 지 5백년이나 지난 지금, 세 번째 천년이 시작되려는 마당에

어째서 그렇게도 많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빈민이나 마녀, 아니면 범법자로 규정되고 있을까? 토지 몰수와 대규모 빈민화는 여성에 대한 꾸준한 공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그리고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발전과정을 검토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성과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문제를 중심으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이행”의 문제를 검토했다. 그리고 여성주의의 성과들과 맑스주의, 푸코의 이론에 기대고 또 수정하면서 이 작업은 진행된다.

이 작업에서 배울 수 있는 정치적 교훈은 사회, 경제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항상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그 사회적 관계 속에 짜여진 모순(자유에 대한 약속과 억압의 만연이라는 현실, 번영에 대한 약속과 빈곤의 만연이라는 현실)을 착취 대상(여성, 식민지 신민,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 지구화로 인해 갈 곳 잃은 이민자들의) “본성”을 폄하함으로써 정당화하거나 애매하게 흐려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 1장 온 세상에는 충격 한 방이 필요하다-중세 유럽의 사회운동과 정치적 위기 들어가는 말

“자본주의 이행기”의 여성과 재생산의 역사는 소농, 장인, 날품팔이와 같은 중세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온갖 방식으로 봉건권력에 맞섰던 투쟁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자본주의가 “진화”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세기에 걸친 사회적 갈등은 봉건영주, 도시귀족, 주교와 교황의 권력을 흔들고 진정으로 “온 세계에 큰 충격을 한 방” 쏘았다. 자본주의는 이것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이었다. 자본주의는 반봉건투쟁에서 등장한 가능성을 파괴해 버린 반혁명이었다.

한편 노역, 임금수준, 지대, 십일조와 같은 계급투쟁의 고전적인 영역만 보고 그 투쟁이 만들어 낸 새로운 사회생활의 전망과 젠더관계의 변형을 무시한다면, 여성사와 자본주의 발전사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유럽의 풀뿌리 여성운동사에서 최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반봉건적투쟁의 과정 속에 하찮다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전망과 변형이 존재했다. 또 지배적인 성규범에 도전하고 남녀간에 한층 더 평등주의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최초의 조직적인 시도가 반봉건투쟁으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이 다른 세상이 어째서 실현되지 않았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몇 가지 답을 모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와 노동인구 재생산이 봉건지배에 맞서 어떻게 재정의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계급관계로서의 농노제

농노제는 봉건제의 지배적 계급관계로, 14세기까지 반봉건투쟁의 초점이었다. 농노제는 로마제국의 노예제가 와해되자 이에 대응하여 5-7세기에 나타났다. 4세기 경 로마 영토와 신생 게르만 국가의 지주들은 노예가 한 뼘의 땅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허용해야 했고, 동시에 지주는 자유농민을 종속적 지위로 만들기 시작했다. 노예노동의 팽창과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몰락한 자유농민이 자신의 독립을 희생하여 지주에게 보호를 요청했던 것. 이처럼 서로 연관된 두 현상의 결과로 농노제가 등장했다. 전자의 조치는 농노의 자율성을 증대시켰고, 삶의 조건을 개선했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로 인한 소작농의 자립경험은 정치적, 이념적 잠재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농노의 힘은 토지가 그들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공유지”의 이용이 토지의 이용에 뒤따랐다. 목초지, 숲, 호수, 방목지 같은 공유지는 소작농에게 경제적으로 몹시 중요한 자원이었으며, 공동체의 결속과 협동을 촉진했다. 그러나 중세 농노공동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연대의 목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모범이라 할 수도 없다. 중세 촌락은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 농민층 내부에도 자유농과 농노, 부농과 빈농, 토지 보유농과 영주직영지 노동으로 받는 임금으로 먹고 살던 토지 미보유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던 많은 사회적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은 모든 면에서 2등 지위를 가졌다. 그럼에도 여성 농노는 후일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여성보다 남성 친족에 덜 의존했고,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덜 차별 받았으며, 남성의 필요에도 덜 종속되었다. 농노공동체에서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종속은 제한적이었는데, 그것은 영주의 권위가 남편 및 아버지의 권위를 압도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장원의 발일이 어디까지나 자급자족적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보니, 자본주의적 농장에 비해 노동의 성적 분업이 두드러지게 차별적이지도 않았다. 봉건 촌락에서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과 노동력을 생산하는 것 사이에 사회적 분리가 전혀 없었고, 모두 가족생계에 보탬이 된다고 보았다.

중세사회에서 공동체가 가족에 우선했다는 점과 여성 농노의 일이 대개 다른 여성들과 협동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의 성적 분업이 여성에게는 고립이 아닌 힘과 보호의 원천이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 장원에서 여성의 지위가 정적인 실체였던 것은 아니다. 여성의 힘, 그리고 남성에게 대한 관계는 언제나 영주에 대항하는 공동체의 투쟁과 그로 인해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발생한 변화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 공유지 투쟁

14세기가 끝나갈 무렵, 영주에 대항하는 농민반란은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것이 되었으며, 무장봉기도 종종 있었다. 이는 중세를 관통하여 흐르던 긴 갈등의 결과였다. 중세는 끊임없이 계급 투쟁 중이었다. 습격과 살인의 형태도 있었지만, 대체로 소송의 형태였다. 농노의 일차적 목적은 잉여노동과 생산물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고, 경제적/법률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농노의 투쟁에서 이 두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많은 의무가 농노의 법적 지위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큰 갈등의 요소는 부역. 또 하나는 농노들이 공유지로 간주한 숲, 호수, 언덕을 포함한 비경작지의 이용이었다. 그러나 가장 격심한 투쟁은 여전히 귀족의 지배권으로부터 나오는 세금

과 의무에 대한 것이었다. 사망세, 결혼세, 상속세, 지대, 그리고 영주가 성직자의 이름으로 대신 징수했던 십일조. 봉건의무 중 노역과 더불어 “자연과 자유에 반하는” 이와 같은 세금에 대한 원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봉건권력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따라서 농노는 끈질기게 이에 저항했다. 저항의 형태에는 도망이나 이사 뿐 아니라 “꾸물거림, 시치미, 거짓 순종, 무식한 시늉, 의무 방치, 줌도독질, 밀렵”이 있었다.

“관습”이 농노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했지만, 관습의 해석 역시 논쟁의 대상이었다. 영주와 소작인 간의 대립에서 “전통의 발명”은 흔한 일이었다. 양측이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통을 재정의하거나 잊어버리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13세기 중엽에 이르러 영주들이 “전통”을 문서화하게 되었다.

### 해방과 사회적 분화

정치적인 면에서 농노 투쟁의 첫 번째 결과물은 (특히 북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많은 촌락에 부여된 “특권”과 “특허장”의 양허였다. 이는 의무를 고정시키고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했으며, 때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형식을 규정하기도 했다. 자의적 체포와 기타 권력남용을 줄였고, 농노가 징집에 응할 의무도 경감됐으며, 지대를 폐지 혹은 고정, 상점 운영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부역의 금납화였다. 이로 인해 농노제는 사실상 끝났다. 그러나 금납화는 투쟁의 목표를 희석시키고 사회적 분화와 봉건촌락의 분열을 조장했다. 부농과 빈농 사이에 격차가 심해지면서, 13세기 경에는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골이 깊어졌다. 그리고 일부 농민이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을 밟았다. 이 외에도 금납화에는 두 가지 부정적 결과가 더 있었다. (1)생산자가 자신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 부역이 화폐지대로 대체되면서 농민들이 잔신을 위한 노동과 영주를 위한 노동을 차별화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2)자유로워진 농민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착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발전 과정에서” 금납화는 “독립적인 농민 소유권의 성장”을 촉진하여 “예전의 자가고용 토지보유자”를 자본주의적 소작인으로 바꿔 놓았다.

시장경제 지지자들의 생각과 달리 경제생활의 화폐화가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된 것은 아니었다. 화폐와 시장은 계급차이 위에 소득차이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적선에 기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대중을 만들어 농민층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대부업에 종사하던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강해졌다. 삶이 상업화 되면서 여성은 계급을 불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재산과 소득에 대한 여성 접근권이 더욱 제약을 받았기 때문. 그래서 여성이 이농 동향을 주도하게 되었고, 15세기에 이르면 도시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대부분 도시 여성은 저임노동에 종사하면서 악조건 속에서 살았다. 여성은 가난했으나, 후일 남성의 직업으로 간주될 여러 직종에 서서히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14세기가 되면 여성이 선생, 의사 등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들은 대중운동, 특히 이단적 운동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의 새로운 독립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성혐오적 반발이 나타난다.

### 천년왕국 운동과 이단 운동

12-13세기 천년왕국 운동의 주역은 금납화로 인해 늘어난 무토지 프롤레타리아트였다. 농민뿐 아니라 창녀, 성직을 박탈당한 사제, 도시와 농촌의 일용노동자와 같이 봉건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중세 프롤레타리아트의 봉건관계에 대한 현실적 대안 모색과 성장하는 화폐경제에 대한 저항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천년왕국운동이 아니라 민중적 이단이었다. 이 둘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천년왕국 운동은 조직적 구조나 계획 없이 특정한 사건이나 카리스마적 개인이 운동에 불을 붙였다면, 이단 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민중적 이단은 상인들과 십자군이 들어온 동방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정통교리로부터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의 급진적 민주화를 갈망하는 저항운동에 가까웠다. 중세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이단이 곧 “해방신학”이었다. 계서제, 사적 소유, 부의 축적을 비판. 노동, 소유, 출산, 여성의 지위 등 일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해방의 문제를 제기. 국제적 차원의 대안적 공동체 구조를 제공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단 운동이야말로 최초의 “노동자 인터내셔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교회에 대한 이단의 도전은 무엇보다 정치적 도전이었다. 그러자 반대로 교회가 이단의 도전을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불복종을 짓누르는데 이용했다. 예컨대 1377년 플랑드르 지방의 이프르에서 직물공들이 고용주들에 맞서 무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단지 반도로서 교수형에 처해졌을 뿐 아니라 종교재판소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했다. 등등.

가장 영향력이 컸던 카타르파. 십자군을 포함한 전쟁혐오, 사형제 규탄, 다른 종교에 관용적, 출산 반대 등. 성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 완성된 이들”은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들은 성적 금욕을 실천할 것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교회가 금욕에 부여한 중요성이 육체의 과대평가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세 사회에서는 토지부족과 동업조합의 보호주의적 가입규제로 농민도 장인도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없었다. 정통파 기독교인들도 늦은 나이에 결혼했으며 “땅이 없으면 결혼도 없다”는 것이 규칙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의 출산거부는 상당한 동조를 얻었을 것이다. 성과 출산에 관한 이단의 규칙들에서 실제로 중세적 산아제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4세기 후반에 심각한 인구위기와 노동력 부족이 나타났을 때 이단이 출산범죄, 특히 “이상성행위”, 유아살해, 낙태와 한패로 몰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다고 이단이 인구에 결정적인 충격을 준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최소한 두 세기에 걸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 모든 피임법을 이단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는 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성에 대한 이단의 교리가 정통교리에 야기한 위협도 교회가 결혼과 성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교회는 이런 통제를 통해 황제로부터 가장 가난한 농민에 이르기까지 만인을 자신의 감시와 규율 아래 둘 수 있었다.

### 섹슈얼리티의 정치화

성행위를 규제하려는 교회의 시도는 역사가 깊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4세기 이래로 성직자들은 지속적으로 여성과 성행위의 배제를 성스러움과 동일시함으로써 성행위가 여성에게 주는 (남성에 대한) 힘을 몰아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성은 고해의 주제가 되었으니, 고해자의 성행위에서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도 토론의 주제가 되었”고 이제 “성행위의 상이한 면면이 생각/말/의도/비자발적 요구/실제 성행위로 나뉘어 성의 과학을 구성”했다. 17세기 담론을 추적하는 푸코와 설명과 달리 고해안내서는 중세에 이미 새로운 성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성적 통제는 12세기에 고조되었고, 이상 성행위/피임성교/동성애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역압적 법률이 도입되자 성은 완전히 정치화되었다. 후일 카톨릭의 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12세기에 이미 교회는 성을 국가적 문제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성 문제에 관한 이단의 비정통적 선택들도 성직자의 지배로부터 신체를 해방시키기 위한 반권위적 입자이라고 봐야 한다.

### 여성과 이단

이단 운동에서 여성은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가졌고, 중세에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사회 생활과 이동성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카타르파와 발도파에서 여성은 성례를 집전하고 설교를 행하고 세례를 주고 사제서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또한 이단은 미혼남녀의 동거를 허락했으며, 여성공동체도 형성되었다.

여성은 10세기에 이미 보고밀파에서 큰 비중을 차지. 11세기 프랑스/이탈리아에서 이단 운동에 활력을 제공한 것도 여성. 이와 같이 이단 종파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컸던 것이 이단의 “성 혁명”의 원인일까? 이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성이 자신의 재생산 기능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고해안내서에 여성의 낙태와 피임약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이다. 후일 마녀사냥에서 피임이 범죄가 되는 것을 고려할 때, 피임약을 “불임 묘약” 또는 말레피키아(마녀들의 사악한 행위, 혹은 악마와의 계약)라 부르면서 그것을 오로지 여성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세 초기 교회는 여성 피임 관행을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 통제가 “흑사병”이 만들어낸 인구 위기의 여파처럼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사태는 급변했다. 페스트 확산 후 이단의 성적 측면이 더 심각한 박해에 직면했으며, 후일 사바트(마녀안식일)라는 표현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14세기 중엽에는 ‘루시퍼파’라는 악마숭배종파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기 시작했고, 이단 박해가 마녀사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발맞추어 이단의 형상은 점차 여성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15세기 초가 되면 마녀가 이단 박해의 주요 대상이 된다.

### 도시의 투쟁

여성과 남성, 농민과 도시노동자 모두가 이단 운동의 대의에 함께 했다. 중세에는 도시와 시골의 관계가 밀접했고, 13세기부터 (특히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에서) 토지 귀족과 도시귀족이 점점 통합되면서 단일한 권력구조로 작용하기 시작했던 만큼 농민과 도시 노동자는 동일한 정치적 지배자에 종속된다는 점 때문에도 단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 사이에 상호관심과 연대가 강화됐다. 따라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면 언제나 장인, 미숙련노동자, 도시 빈민대중이 함께 했다. 농민과 장인을 결속시킨 것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려는 공통의 바람이었다.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갈망은 주로 빈곤과 재화 공유를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평등주의적 견해는 일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도 반영되었는데, 특히 이단 종파들에서 그랬다. 한편에는 “노동거부” 전략. 다른 한편에는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것. 예컨대 “귀족들이 가진 것은 모두 우리의 노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태도.

노동에 대한 이런 가치평가는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을 반영한다. 그들에게 도시의 삶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농노제나 마찬가지로, 엄격한 통제와 억압 하에 있었다.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회적 저항의 형태와 이단적 사상의 수용을 관찰할 수 있다. 14세기 내내, 특히 플랑드르 지방에서, 직물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주교, 귀족, 상인, 심지어는 대형 동업조합에 반기를 들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장인과 노동자가 기회만 있으면 반란을 일으켰고, 지역의 부르주아지는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 이런 봉기와 반란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불릴만한 정권들을 수립하기도 했다.

### 흑사병과 노동력의 위기

흑사병은 중세 투쟁들의 전환점. 유럽 인구의 약 30-40%가 죽었고, 사회 계서제가 전복되었으며, 사람들은 사회적, 성적 규제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흑사병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계급갈등이 만들어 낸 노동력 위기의 심화였다.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하게 되자 임금이 상승했다. 이는 봉건지배를 부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농민은 자유롭게 이동하여 경작할 토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농민과 장인이 상황을 지배하게 되었다. 14세기 말에 이르면 지대납부 거부와 부역 거부가 집단적 현상이 되었고, 봉건질서를 지탱하던 계급 관계가 전복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역이나 노예제를 부활시켜서라도 노동착취를 증대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계급갈등은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으며, 유럽 곳곳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5세기에 이르면 농민과 귀족의 대립은 1462-1486년 스페인의 레멘사스와 같은 전쟁으로 변했다. 어느 경우에도 반란세력은 봉건지배에 일정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더 나은 생활조건을 위해 협상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영주의 권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실제로 15세기 초가 되면, 최소한 잉글랜드에서는 농노제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반란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패배했고 그 지도자들은 잔인하

게 처형당했다.

뒤이어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의 황금시대”라 일컫는 때가 도래했다. 이 시기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과 달리 쏘롤드 로저스는 이 시기를 유토피아처럼 묘사한다. 그는 “잉글랜드에서 어느 시대에도 임금이 것처럼 높은 적이 없었고, 식료품 값이 것처럼 낮았던 적이 없었다”고 썼다. 이 풍요의 시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불만한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서유럽 농민과 도시 노동자 중 다수에게 15세기는 그들이 전례 없는 힘을 가졌던 시대였다.

### 성성정치, 국가와 반혁명의 부상

15세기 말이 되면 반혁명이 사회적, 정치적 삶의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정당당국들이 가장 젊고 반항적인 남성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성관계를 허용하는 악랄한 성정책을 통해 그들을 포섭하려 노력했다. 이로 인해 계급 적대가 프롤레타리아트 여성에 대한 적대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지방당국들은 피해자가 하층민 여성인 경우에는 강간을 사실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프랑스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여성에 대한 집단강간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자크 로시오는 젊은 남성들의 강간 문화 동참을 계급저항의 한 형태로 그린다. 프롤레타리아트 남성이 경제적 조건 때문에 결혼을 미룬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몫”을 되찾고 부자들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강간 대상은 부자들의 하인인 가난한 여성들.) 결과는 모든 노동자에게 파괴적이었다. 가난한 여성에 대한 국가후원 강간은 반봉건투쟁을 통해 얻은 계급연대의 토대를 침식했다. 여성에겐 더 가혹했다. 강간 당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웠고 매춘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강간 문화는 계급불문 모든 여성을 비하하는 강렬한 여성혐오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같은 시기에 시작된 마녀사냥의 토대가 되기도. 당국의 또 다른 성정책은 매춘의 제도화. 국영매춘은 당시의 고임금 체제덕에 가능했는데, 지배층은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 젊은이들의 소란을 잠재울 효과적인 처방으로 간주했다. 교회조차 매춘을 정당한 활동으로 보게 되었다.

반란이 실패한 것은 봉건권력의 모든 세력들(귀족, 교화, 부르주아지)이 전통적인 차이에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반란에 대한 공포로 합심하여 공동보조를 취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귀족과 전쟁상태에 있으며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는 부르주아지의 상상은 왜곡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층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귀족과 연합하고 있었다. 그들은 농민과 도시의 민주적 직조공 및 수선공이 귀족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지했다. 그리하여 절대국가로 가는 첫걸음인 군주의 지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귀족의 권력을 재수립한 것은 바로 도시 성벽 내의 자치권을 얻기 위해 두 세기 동안 투쟁해 온 부르주아지였다.

## 2장 노동축적과 여성의 지위하락: “자본주의로의 이행”에서 “차이” 구성하기 들어가는 말

자본주의의 발전이 봉건권력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전망을 보여주었던 공동체주의적 사회운동과 반봉건 반란이 패배하고, 마녀사냥이 확산되고, 식민지가 팽창 하면서 유럽의 혁명적 진전은 최후를 맞이했다. 그 와중에 봉건경제 역시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부터 자본주의 사회가 “진화”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유럽의 지배계급은 이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세계적인 공세를 펼쳤다. 최소 3백년에 걸쳐 새로운 부의 원천을 전유하고 경제적 기초를 확대하며 새로운 노동자들을 자신의 휘하로 불러들이려는 이 가차 없는 노력의 과정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토대가 놓이는 등 지구의 역사가 탈바꿈하게 되었다. “정복, 노예화, 약탈, 살인, 즉 폭력”이 그 과정을 떠받쳤다. 따라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개념은 여러 면에서 허구다. 실제로 이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역사상 가장 유혈낭자하고 불연속적인 시대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이행”이라는 용어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맑스는 유럽 지배계급이 축적위기에 대응하여 개시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초축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봉건적 반동”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자본주의 체제 발전의 역사적, 논리적 조건을 밝혀낸다. 시초primitive라는 말은 특정 시기의 특정 사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적 관계들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맑스는 시초축적을 전적으로 산업임노동자의 관점에서 분석했으며, 여기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 역시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노동인구 재생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가져다준 심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주로 유럽을 준거로 아래의 내용을 논증할 것이다.

(1)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형성과 “축적” 수단은, 유럽 농민으로부터 생계 수단을 빼앗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토착민을 “신대륙”의 광산과 플랜테이션에서 노예처럼 부린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2) 이 과정에서 신체는 노동기계로 탈바꿈하였고 여성은 노동인구 재생산에 종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마녀”의 박멸을 통해 여성의 힘을 파괴할 필요가 있었다. (3) 그러므로 시초축적은 착취할 수 있는 노동자와 자본의 단순한 축적과 집중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노동계급 내부에서의 차이와 분할의 축적이기도 했으니, “인종”과 나이 외에도 성별에 따라 세워진 계서제가 계급지배와 근대 프롤레타리아트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대다수 맑스주의자들처럼, 자본주의 축적을 남녀를 막론한 노동자의 해방과 동일시할 수 없고 자본주의의 출현을 역사적 진보의 계기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착취를 강화하고 은폐하는 심원한 분할을 프롤레타리아트 신체에 이식함으로써 더욱 잔혹하고 교활한 형태의 노예화를 창출했다. 지구 구석구석에서 자본주의 축적이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면에서 이와 같이 강요된 분할들 때문이며, 특히 남성과 여성의 분할 때문이다.

### 자본주의 축적과 유럽의 노동축적

자본주의 발전사의 초창기는 거대한 강제노동수용소와 같은 인상을 준다. 예컨대 서유럽의 마녀사냥과 인클로저. 이후 감옥체제의 본보기가 된 노역소와 감화원. 노예무역 등. 이로부터 폭력이 시초축적 과정의 주된 경제적 힘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 지배계급이 획득한 부의 양과 그들 휘하에 복속된 노동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시초축적은 곧 역사상 전례 없이 방대한 노동축적이었다.

지배계급은 노예제를 비롯한 강제 노동의 형태를 지배적 노동관계로 만들려고 했으며, 이는 16세기 아메리카 식민지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마찬가지였다. 15세기 유럽에서, 잔존하던 노예제가 부활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인구부족과 농민저항에 의해 저지되곤 했고, 이것이 서유럽에서 농노제가 부활하지 못한 이유다. 물론 재농노화에 저항하는 농민들을 제압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배층은 토지의 박탈과 임노동의 강제으로써 대응하곤 했다. 독립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고용주와 결별하려는 노동자는 투옥되었고, 이것이 반복되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노동착취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노동인구의 재생산을 위협했고, 역사상 가장 거대 규모의 학살이었던 노예무역은 이런 모순이 폭발되는 공간이었다.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서 여성과 재생산의 역사는 이런 역사적 맥락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제 전술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출현을 구체화한 주요 사건인 토지사유화와 가격혁명을 추적하는 한편, 둘 중 어느 것도 자생적인 프롤레타리아트 형성과정을 촉발시키지 못했음을 보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자본가 계급이 유럽 프롤레타리아트를 규율, 재생산,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의 대략적 윤곽을 그릴 것이다. 그 정책들은 여성을 공격하는 데서부터 시작했고,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를 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는 그것을 “임금 가부장제”라고 정의한다. 미자막으로 식민지에서 일어난 인종적, 성적 계서제의 형성을 살펴보고, 그 계서제가 어느 정도까지 토착민, 흑인, 유럽인 여성 간에,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에, 대립 또는 연대의 영역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고찰해 보겠다.

### 유럽의 토지사유화, 기근의 생산,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자본주의 시초부터 전쟁과 토지사유화를 통해 노동계급의 궁핍화가 시작. 이는 국제적 현상이었다. 16세기의 전쟁은 성격이 변화하면서 유럽에서 농업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이전에는 농번기 전쟁은 피했지만, 군사작전이 길어지고 군대 규모가 열배로 불어나면서 군대는 상비군이자 직업군으로 변모.) 교회가 소유한 토지가 종교개혁 과정에서 몰수되면서 수많은 봉건적 토지보유 계약이 무효로 돌아갔다.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상층계급의 토지약탈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인클로저’를 통해 토지 사유화가 진행. 이 과정들을 통해 농촌마을은 몰락한다. 특히 소농과 소작인의 재생산에 필수적이었던 공유지의 사유화는 “원시 공산주의”(R.D.Tawney)라 할

만한 협동적 관계망을 파괴했다. 공유지는 여성에게 특히 중요했는데, 여성은 토지에 대한 권리나 사회적 권력이 더 약했기 때문에 생존, 독립,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 더 의지했기 때문. 토지가 사유화되고 개별 근로계약이 집단적 계약을 대체하면서, 농사일에서 협력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경제적 격차가 커졌다. 극빈층이 늘어나고, 사회 결속이 파괴되었다. 특히 나이든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 그들은 극빈자 명단에 오르거나 차용, 좀도둑질, 상환연기로 근근이 생존했다. (마녀사냥 기록에 잘 남아 있다.) 인클로저는 장인의 경제적 토대 역시 침식했다. 16-17세기 상업자본가들은 농촌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해서 도시 동업조합의 권력을 분쇄하고 장인의 독립성을 파괴하고자 했다.

토지를 박탈당하자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중세에는 임금을 강제된 부역과 대조되는 자유의 수단으로 보았지만, 토지를 상실한 이후에는 노예화의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 잉글랜드에서 반인클로저 투쟁은 15세기 후반에 시작해서 16-17세기 내내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율타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종류의 사회적 저항”이자 계급갈등의 상징이 되었다. 반인클로저 폭동은 종종 대규모 봉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 약 10% 정도가 여성. 그리고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저항운동도 있었다.

여성은 인클로저의 충격으로 남성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토지가 사유화되고 화폐관계가 경제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활동은 오히려 가치를 박탈당한 재생산 노동에 점점 더 한정되었기 때문. 전자본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생산과 재생산의 통일성도 끝나고 성별화가 시작. 새로운 화폐 체제는 오직 시장을 위한 생산만을 가치 창조 활동이라 정의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구 재생산은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것이 되고, 자연적 사명으로 신비화되었으며, “여자의 일”이란 꼬리표가 붙어졌다. 임금을 받는 수많은 직업에서 여성이 배제되었고, 여성이 임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남성의 평균임금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임금을 받았다. 19세기에 전업주부가 생겨나면서 이 과정은 정점에 달하게 된다. 여성들은 만성적인 가난과 경제적 의존상태에 빠졌고, 노동시장에서의 존재감도 사라졌다.

#### 가격혁명과 유럽 노동계급의 빈민화

“가격혁명”이란 물가인상 현상. 국내외에서 농산물의 수출입을 촉진하는 시장체계가 발전하고 상인들이 농산물을 매점매석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메리카의 금은보화가 유입되자 부가 대규모로 분배되고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가 생겨나게 되었다. 소농은 몰락하고, 자본주의적 기업가 집단이 등장한다. 가격혁명은 실질임금 하락 현상을 촉발시켰다. 식료품 가격이 8배가 뛰는 사이 임금은 고작 3배가 오를 뿐이었다. 이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 일이 아니라, 노동자의 조직화를 금지하고 상인에게는 상품의 가격결정과 유통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국가 정책의 산물이었다.

여성에게 임금폭락은 더욱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 14세기에는 동일노동에 대해 남성

임금의 절반, 16세기 중반에는 안 그래도 줄어든 남성 임금의 3분의 1을 받았다. 이는 매춘 확산과도 연결된다. 14-15세기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핵심은 “자유”와 노동량 감소였으나, 16-17세기에는 굶주림이 투쟁의 주요 원천이었다. 이것은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기나긴 굶주림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체로 식량 폭동을 일으키고 이끈 것은 여성이었다. 그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6-17세기에 “식량 범죄”가 중대범죄로 나타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마녀재판에서 되풀이 되는 “악마의 연회”라는 주제가 전형적인데, 이로부터 양고기구이, 흰빵, 포도주를 먹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악마적인 행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노동인구 재생산에 대한 국가개입: 노동계급의 범죄자화와 빈민구제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산에 맞서는 저항전선에는 식량투쟁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처에서 일군의 민중이 생계수단 파괴에 저항하며 토지사유화, 관습권의 폐지, 새로운 세금의 부과, 임금에의 의존, 상비군의 촌락 주둔에 맞서 싸웠다. 1530-1670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천 번의 봉기가 일어났고, 많은 경우 군대가 개입하고서야 진압되었다.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도 비슷. 이와 같은 투쟁은 촌락의 전자본주의적 세계가 산업노동자 세계가 이루어낸 것과 같은 수준의 투쟁을 낳을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범죄율 또한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도둑맞은 공동체의 부를 다시 개간하고 전유하는 과정의 일환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본이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기 위해서 노동력으로부터 재생산 수단을 박탈해야만 하는 만큼, 빈민화, 반란, “범죄”의 증가는 자본축적의 구조적 요소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클로저와 가격혁명에서 비롯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한 세기가 지나면서 노동계급의 범죄자화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신축 구빈원이나 교정원에 감금되어 노동하거나, 아니면 항상 채찍과 소구대의 울가미로부터 한발짝 떨어져 법 외부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국가를 공공연하게 적대시하는 대규모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형성되었다.

#### 인구감소, 경제위기, 그리고 여성의 혼욕

무한한 노동공급이라는 식민자들의 꿈은 곧 깨졌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에 죽음을 몰고 왔다. “아메리카 대학살.” 성직자들은 이 대학살을 인디언의 “짐승 같은” 행동에 대한 신의 징벌로서 정당화했지만, 그 경제적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다. 서유럽에서도 1580년대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17세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인구의 3분의 1을 상실한 독일에서 절정에 달했다. 죽음은 “가난한 사람”을 공격했다. 당국은 사람들에게 범인을 색출하라고 올려대는 동시에 낮은 출생률과 가난한 사람들의 출산기피 또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구위기와 경제위기는 1620년-1630년대에 정점에 이르렀다. 푸코의 주장과 달리 재생산과 인구증가가 국가적 문제이자 지적 논쟁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16-17세기의

인구위기였다. 나아가 이 시기에 “마녀”에 대한 박해가 격렬해진 것과, 출산을 규제하고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주도권을 파괴하기 위해 국가가 새로이 훈육조치들을 도입한 것 또한 이 17세기의 “일반적 위기”로 거슬러 올라가 규명해야 한다. 부르주아지 내부에서 여성의 품행과 부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마녀가 아이들을 악마에게 바친다고 고발되었던 것과 함께, 이 시기 유럽의 법률에서 출산범죄를 범한 여성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에서도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 그들은 성적 금욕에 대한 기존 기독교의 찬양을 부정하면서 결혼과 성의 가치를 드높였고, 출산능력 때문에 여성에게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인구증가에 대한 옹호는 중상주의에서 정점. 중상주의는 큰 인구규모를 일국의 번영과 세력의 비결로 보았다. “빈곤의 효용”을 주장하고 “게으름”이 사회의 페스트라 단언하면서 구빈원을 고안한 것도, 부랑자들을 추적한 것도, 범죄자들을 아메리카 식민지로 “운송”한 것도, 노예무역에 투자한 것도 중상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원하는 인구비율을 회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중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출산에 대해 행사하던 통제권을 파괴하기 위해 국가가 개시한 진정한 전쟁이었다. 마녀사냥은 이 전쟁을 수행한 주요 수단. 이런 ‘전쟁’을 통해 여성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충분한 출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자식을 낳으려는 열정이 부족한 여성이 처벌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세기 동안 지속된 이 정책들의 결과 여성들은 출산노예로 전락했다. 식민지 플랜테이션 여성 노예나 유럽의 여성들. 공통적으로 여성의 신체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노동인구를 확대시키는 기구로 변질되었고, 여성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외부의 박자에 맞춰 작동하는 자연적 출산기계 취급을 당했다. 맑스의 분석에서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출산이 ‘자연적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출산과 인구변화는 자동적이거나 “자연적”인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가 노동인구의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해 규제와 강압에 의존해야 했던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어떤 노동자보다도 심각한 자기 신체로부터,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아이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한다.

### 여성노동의 평가절하

여성의 출산 통제를 불법화한 것은 여성 통제의 측면에서나 노동의 자본주의적 조직화라는 측면에서나 대단히 중요한 변화. 피임이 불법화되면서 여성들은 전승되어 오던 지식들을 박탈당했고, 점차 피임법은 남성화된다. 국가는 여성을 재생산 노동에 가두고, 모성을 강제노동의 지위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여성은 고용에 있어 새로운 제한들에 묶이게 되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트 여성은 최하층의 직업 외엔 일을 구하기 어려웠다. 여성은 남편을 돕는 방식으로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의 등장. 여성의 노동은 비-노동이라는 주장. 토지를 상실한 여성들이 임노동에 고용될 힘까지 잃자, 결국 매춘이 확산되었다. 중세에는 창녀들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에, 16세기에는 상황이 반전되었다. 종교개혁과 마녀사냥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혐오의 시대가 오자, 매춘은 새로운 제한에 묶이게 되었고, 곧 불법화되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이 같은 극단적 공격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자본주의가 여성의 부불노동에 기댄 기능적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여성의 추락이 가능했는지, 누가 공모하고 있었는지다. 우리는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동업조합의 여성노동 평가절하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이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성을 작업장으로부터 배제하려 했다. 또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직인들이 파산을 피하고 독립적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성실한 가정관리”가 필수적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일을 가사노동에 국한시키고 싶어했다. 다른 한편, 당국의 협조 역시 주요. 반항적인 직인들을 달랠 수도 있었거니와, 여성을 작업장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이 그들을 재생산 노동에 묶어두거나 가내수공업에서 저임금노동자로 부릴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 새로운 공유재산이자 상실한 토지의 대체물로서의 여성

이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성적계약’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 여성은 인클로저 때문에 남성노동자가 상실한 토지의 대체물이자 가장 기초적인 재생산 수단이 되었으며, 누구나 뜻대로 전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가 되었다. 여성의 활동이 비노동으로 정의되자 여성의 노동은 마치 공기처럼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는 천연자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여성으로서는 역사적인 패배. 동업조합에서 여성들이 쫓겨나고 재생산 노동이 평가절하 되면서 빈곤은 여성의 몫이 되었다. 또한 여성노동에 대한 남성의 “일차적 전유”를 이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가 구축되면서 여성들은 고용주와 남성이라는 이중적 종속관계에 얽매이게 되었다.

#### 임금 가부장제

이런 맥락에서 이 시기에 공적인 영역에서 분리된 가족은 노동인구 재생산기지라는 근대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시장의 대응물로서의 가족, 사회관계의 사유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가족,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규율과 가부장적 지배의 보급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족이 여성노동의 전유와 은폐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노동계급 가족에게서 잘 드러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종전의 유산계급 가족에 대한 논의에서는 남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었는데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이 대리인은 부인과 자식을 포함하는 “종속계급”을 훈육하고 감독할 임무를 받았다. 그런데 상층계급의 남자의 권력의 원천은 재산이었던 반면, 노동계급의 원천은 여성의 임금으로부터의 배제였다. 이같은 가족에서 놀라운 점은, 부인이 남편과 나란히 서서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도, 그에 대한 보수는 남편이 독차지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은폐.”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고 남성노동자가 여성노동을 전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물질적 조건을 창출했다. ‘임금 노동제’를 말하는 맥락이 바로 이

것. (그러나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집안일의 양과 종류는 제한적이었고, 이 시기에 노동계급 내에서 고전적인 전업주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여성과 아동의 고용을 제한하는 공장법이 통과된 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근대적 가족은 자본가계급이 노동인구 재생산에 장기투자를 감행한 결과였다. 이는 자본이 남성 노동자에게 “일하지 않는” 아내를 부양할 수 있을만큼 높은 임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한층 더 맹렬하게 노동을 착취할 것인가 사이에서 고심하다 봉기의 위협 때문에 택하게 된 타협의 결과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저임금에 대한 오랜 고집을 폐기하는 사회 혁명이었다. 이 역시 여성의 임금배제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두 세기에 걸친 노예노동 착취의 산물이자 곧 식민제국 팽창으로 더욱 증대될 운명이었던 자본주의적 부의 표식이기도 했다.

#### 여성 길들이기와 여성성/남성성의 재정의: 유럽의 야만인으로서의 여성

“이행기”의 학계와 사회정책의 주요 논제에 여성의 예속화와 “길들이는” 방법이 포함. 여성의 법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침식되었고,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을 박탈당하고, 여성들 간의 관계는 위험한 것으로 부정되었다. 여성의 본성적인 덕과 악에 대한 광범위한 학문적, 대중적 논의는 자본주의로의 이행에서 젠더 관계를 이념적으로 재정의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극대화되고, 여성성의 전형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지은 새로운 문화적 기준이 구축되었다. 또한 여성은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욕망이 넘치며 자기통제능력이 부족한 만큼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의 통제 아래에 놓여야 한다는 명제가 확립되었다.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와 같은 작업들. 아메리카 정복 이후 “인디언 야만족”에 부과된 적대와 소외가 여성에게도 똑같이 부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며, 두 경우 모두 문화적 비방이 강탈의 기획에 봉사했다.

마녀사냥은 전자본주의 유럽에서 여성의 힘의 원천이자 반봉건투쟁에서 그들이 저항할 수 있었던 환경을 구성했던 관행, 집단적 관계, 지식 체계 전체를 파괴했다. 이 패배로부터 여성성의 새로운 모형이 등장했으니, 바로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알뜰하고, 말이 적고, 항상 바빠 일하고, 순결한 이상적 여성이자 아내라는 모형이다.

#### 식민지 건설, 지구화, 여성

오늘날 플랜테이션 체제가 산업혁명에 불을 지폈다는 명제는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기실 자본주의는 유럽의 “아메리카 병합”과 두 세기 동안 플랜테이션 농장들에서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피와 땀”이 없었더라면 발아조차 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플랜테이션 체제가 자본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했던 것은 단지 그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잉여노동이 축적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이 체제가 지금까지 자본주의 계급관계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고 있는 노동의 경영, 수출지향적 생산, 경제통합, 국제적 본업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예노동은 한편으로 유럽의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재화의 생산비를 낮추는 세계적

인 조립라인을 형성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도시의 임금노동은 노예들이 생산한 재화를 시장에 진출시키고 노예노동의 생산물가치를 실현시키는 매개물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노예노동은 여성의 가내노동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노동인구 생산 및 재생산에 확실하게 통합되었다. 나아가 임금은 축적의 수단으로 재정의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착취과학의 씨앗과 노동계급의 새로운 분할로 이어진다. 이 분할에서 임노동은 노예제의 대안이 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노예제에 의지했다. 여성 무임노동과 마찬가지로 노예제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노동시간”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작용했다. 노예무역은 유럽 노동자들에게 전대미문의 불행이었다. 노예제는 노동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실험장이었고, 이는 이후 유럽에 수입되었던 것. 또한 노예제는 유럽 노동자의 임금과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개인은 명백히 공범자나 마찬가지로였다 할지라도 유럽 프롤레타리아트 전체가 언제나 아메리카 약탈의 공범이었다고 가정할 순 없다.

17-18세기 프롤레타리아트 대부분은 약정노예계약이나 “수송”(국내 죄수들, 정치적 종교적 반체제 인사들, 인클로저가 만들어낸 부랑자와 거지들의 추방)을 통해서 신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인디언들과 연대가 형성되었다. 지배계급은 이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매우 강력하게 처벌. 동맹에 대한 공포는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 잘 그려진다. 그러나 18세기가 되면 이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인종적 구분선이 그어진다. 1640년대부터 남아메리카 식민지들과 카리브 제도의 노예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축적이 인종적 계서제의 구축을 동반하기 시작했다. 동맹의 가능성을 좌절시키기 위해서였던 것.

### 식민지에서의 성, 인종, 계급

식민지에서 백인 여성 노동자는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노예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고, 자식을 낳기도. 그러나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강제된 인종차별의 통해 변화가 생겼다. 흑인과 백인 간의 성관계가 금지되고, 흑인노예와 결혼한 백인여성은 비난했으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다. 마녀사냥의 대본을 따르기라도 한 것처럼, 새로운 법령들은 백인여성과의 관계를 악마화했다. 아메리카에서 마녀와 흑마술에 대한 모든 금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흑인남성이 그 희생양이 되었다.

결혼과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금기들이 여기서도 사회적 배제를 강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인종적 구분선에 따른 분리차별은 부분적인 성공 밖에 거둘 수 없었다. 이민, 인구감소, 토착민 반란에 더해, 도시에서 경제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백인 지배계급보다 메스티조와 몰라토에 공감하는 경향이 강한 백인 프롤레타리아트가 형성되어 분리차별의 완전한 성공을 가로막았기 때문. 남아메리카 식민지들에서는 “재혼합”이 가능해졌다. 특히 하층계급 유럽인 여성, 메스티조 여성, 아프리카 여성 사이에서 재혼합이 이뤄졌다.

인구 감소 때문에 여성의 가내노동을 장려해야만 했던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토착여성

에게서 자립성을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남성친족들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성적 계서제가 도입되었다. 17세기 중엽 캐나다의 인디언인 몽타네-나스카피족의 규율과 훈련에 대한 프랑스 예수회의 개입은 젠더의 차이가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예 & 이전에는 여성 노예의 출산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던 식민지배자들은 노예무역이 금지되면서 “노예번식” 정책을 채택하고, 그러면서 여성노예의 출산패턴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플랜테이션에서 출생률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이것이 여성노예의 저항의 결과인지 가혹한 환경의 결과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노예제가 사라지자마자 출산율이 올라갔던 것은 사실.

여성들이 희생당하기를 거부하면서 카리브 제도의 경우에서 보듯이 노동의 성적분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그곳에서 여성노예들은 스스로 “자족농지”의 생산물을 내다 파는 반자유인 판매상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 대개 약정노예계약으로 바다를 건너왔던 프롤레타리아트 백인여성과 접촉하게 된다. 그들의 관계는 때로 적대적이기도 했지만, 서로 협력하기도 했다. 여성노예는 식민지 정부의 여러 입법에도 불구하고 재배 및 판매 활동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고, 점차 “자족농지”를 자신이 소유한 토지로 보게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18세기 후반이 되면 원형-농민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섬의 시장을 독점했다. 일부 역사가에 따르면, 카리브 제도에서 노예제는 이미 노예해방 전에 사실상 종식되었다. 여성노예는 이 과정에서 핵심세력이었다. 그들은 치료사, 예언자, 마법 전문가로 활동하는 한편 주인들의 부역과 침실을 “지배”함으로써 백인의 문화에, 특히 백인 여성의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성취는 생존전략과 여성조직망에 근거한 자립의 정치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들의 내면화한 이 관행들과 가치들은 집단적으로 고향에서 뿌리 뽑힌 아프리카인 공동체를 재정의했다.

#### 자본주의와 노동의 성적 분업

이처럼 여성과 시초축적의 역사를 개괄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의 구축 즉 여성을 남성 노동인구의 하인으로 만든 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성노동자는 이 과정에서 공모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여성과 아동을, 그리고 자본가 계급이 정복한 식민지 토착민들을 평가절하하고 훈육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본주의 축적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중국에는 남성 역시 자기소외라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남성개인의 권력과 집단으로서의 권력이 모두 “시원적 탈축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